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42)	봉헌 (510)	성체 (498)	파견 (493)
---------	----------	----------	----------	----------

미사 전례 예절

- 흔히 미사를 “보러간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와 혀와 입과 감정과 마음을 합하여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미사참례”라고 해야 합니다.
- 성당에 항상 늦게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손님 같은 신자입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일만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여유를 가집시다.
- 미사참례 복장은 단정한 옷차림, 되도록 정장을 하도록 합니다. 소매 없는 옷이나 지나치게 짧은 미니스커트, 속이 많이 드러나는 옷, 츄리닝, 기타 운동복, 슬리퍼 착용은 합당한 전례 복장이 아닙니다.
- 성당마당에 들어서 성모님께 인사를 합니다. 이때 성모님께 성호를 그어 인사함은 바람직한 행동이나 굿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29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5/6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5/13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5/20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407	\$	\$27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2	손 아놀드/ 손 쟈마
5/5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6/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5/12	김 마론/ 김 헬레나	6/16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5/19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3	이 요한/ 이 마틸다
5/26	황 가롤로/ 전 제노베파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6 월 7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6 월 10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서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장소는 친교실 입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5 월 20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성모의 밤 행사 5 월 21 일(월) 6:45pm

이번 성모의 밤은 지난번과 같이 성당 옆 잔디밭에서 하겠습니다.

행사 후 친교실 에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성령기도회 피정일정 5 월 25,26,27 일

우리 신부님이 지도 신부로 계시는 성령기도회 임원들의 피정이 우리 성당에서 25,26,27 일 삼일 간 있을 예정입니다. 주님 은총 속에 좋은 피정의 시간 갖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전승환 레오 | 작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10)

제 인생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낀 적을 몇 가지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교리교사 회장직을 맡고 있던 그해 여름,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틈틈이 공부하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아주 부족한 공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학교 준비를 해야 했고 그때 제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많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교리 교사도 부족했고 기존과 다른 기획으로 신앙학교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얼친 데 얼친 격으로 시험일자는 하필 신앙 학교를 떠나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 시절 너무 힘들어 울기도 많이 울었고 혼자 성당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즐겨 들었던 성가가 ‘눈물이 흘러도’ 였으니 혼자 마음 앓이 하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 신앙학교 준비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고 공부는 잠시 미뤄두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험 당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험장에 앉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지를 훑어 보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잠깐 틈틈이 보았던 내용들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신앙 학교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침 합격자 발표날은 교리교사 연수를 가는 날 이었고 결과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합격이었습니다. 전 정말 주님께서서

도와주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경험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당 봉사를 계속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력서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도 봉사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와 사회생활의 중요한 일정 중에서 봉사를 먼저 선택했는데 신기하게도 사회생활의 고비들이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편찮아지신 부모님이 나아질 수 있었던 일, 신자가 아니었던 여자친구를 신자로, 그리고 배우자로 맞이한 일, 그로 인해 책을 쓰게 되고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일 등 그분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봉사하고 노력할 테니 말입니다.

교리상식

미사 때 왜 종을 치나요?

미사 때 종을 치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입니다. 미사 때 치는 종은 모두 이 거룩한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외에 종을 치는 경우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때 서른 세번의 종소리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신 햇수와 관계있고, 부활성야 미사의 종소리는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 만찬 성목요일과 부활성야 전례 때 치는 종과 미사 중 성변화 때 치는 종의 차이가 있다면, 전자가 전례의 필수 요소인 반면 후자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